

일송상 축하

[제19회 일송상 시상식]

오늘 우리는 일송 윤덕선 박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서거 30주년 기념일에, 한국 사회와 교육계의 거목이신 김종수 전 총장님을 제19회 일송상 수상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수상자이신 김종수 박사님은 한국은행 총재, 경제수석비서관, OECD 대사, KDI 원장 등 국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위상을 높인 시대의 지성이십니다. 박사님은 단순한 행정가나 학자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신 혁신의 선구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림대학교에게 김종수 박사님은 '선진 일류 대학'으로의 도약을 이끈 위대한 설계자이기도 하십니다. 박사님께서서는 제6대, 9대, 10대 총장을 역임하시며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특히 'Student-Centered Education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추진하신 'Vision & Action'은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를 학생에게 두는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입하신 스쿨 중심의 학사 개편, 복수 전공 필수화, 그리고 융합 전공의 활성화는 경직된 대학의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또한, 캠퍼스 라이프 센터 건립과 인트러뮤럴 스포츠 리그 창설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마음껏 즐기고 성장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활기찬 한림의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글로벌' 비전을 통해 지방대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는 선진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기려야 할 것은 고(故) 도현 윤대원 이사장과 김종수 박사님 사이의 각별하고도 숭고한 인연입니다. 두 분은 한림을 선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혼연일체'의 동반자로 활약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김종수 박사님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하셨으며, 교육 철학을 공유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셨습니다.

도현 이사장님께서서는 김 박사님을 '시대의 강력한 응전자'이자 'Thinker (사유하는 리더)'로 존중하셨고, 박사님은 이사장님의 전적인 지원 덕분에 전자공학과 폐지와 같은 고통스러운 개혁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보낸 6년 반의 세월은 한림의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변화가 일어난 '공동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종수 박사님의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 자세 또한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 후에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셨던 모습은 '평생 공부하는 교육자'의 표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박사님의 성실함과 정직한 인품은 일송 선생의 '주춧돌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박사님, 박사님께서서 한림과 한국 사회에 뿌리신 혁신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공헌은 단순히 지표상의 성과를 넘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에 더욱 빛납니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지성과 헌신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김종수 박사님의 일송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사님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10.
한림대학교 총장 최양희